



2월 소비자물가지수, 0.4% 상승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.4% 상승하면서 10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하였으나,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.
- 3월 17일 노동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1월에 전월대비 0.2% 상승한 데 이어 2월에도 0.4% 상승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음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는 0.1%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.
- 휘발유 가격이 2012년 초에 비해 갤런 당 53센트 상승한 3달러 88센트를 나타낸 가운데, 톰슨 로이터/미시건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등 휘발유 가격 상승이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연준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인 2%대의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으며, 경제학자들도 곡물가격이 하락하고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함.
- 한편, 3월 넷째 주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전주대비 1만 4,000명 감소한 계절조정 35만 1,000명으로 4연래 최저치를 기록한 2월 수준을 나타냄.
-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최근 몇 주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 14% 감소하는 등 지난 6개월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, 이는 2연래 최대치를 기록한 분기 고용자 수, 3연래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 등과 일치하는 결과임.
- 미국은 여전히 1,280만 명이 실업상태에 머물러있고 금융위기 이전보다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여전히 노동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, 최근 회복조짐이 나타나면서 많은 구직포기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.

(Boston Globe, 3/17 등)